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ol. 9, No. 2, June 2018 (pp. 137-152)
https://imr.kangwon.ac.kr/apjb. 7. 7. 201806. 137.

APJB
ISSN 2233-5900 (Print)
ISSN 2384-3934 (Online)

World Value Surveys를 활용한 Hofstede 문화차원 측정과 활용에 관한 연구

강미영
강원대학교 국제무역학과 시간강사

권종욱
강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Hofstede Cultural Dimension Measuring through World Values Surveys

Mi-Young Kang[a], Jong-Wook Kwon[b]

[a]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Kangwon National University, South Korea
[b]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io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South Korea

Received 01 June 2018, Revised 15 June 2018, Accepted 25 June 2018

Abstract

Hofstede cultural value model is one of the most influential model for cross-cultural studies to measure national difference. In this study, we examine that Hofstede Cultural Dimensions can be measured by World Value Surveys. Selected WVS questions for 31 measurable countries after Exploratory Factor Analysis(EFA)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CFA), approved valid through empirical analysis. It is applicable that Individualism values(IND) has related to 2 questionnaires including life satisfaction, Power Distance values(PDI) to 2 questionnaires about political action(Signing a petition and Joining in boycotts), Masculinity values(MAS) to 2 sexual-role questionnaires like "University is more important for a boy than for a girl", Uncertainty Avoidance values (UAI) to 3 questionnaires about confidence(Parliament, The Political parties and Justice System), Long-Term Oriented values(LTO) to 4 questionnaires including "How proud of nationality" and Indulgence versus Restraints values (IVR)to 2 questionnaires including Feeling of Happiness.

Keywords: Cultural Dimension, Hofstede, Individualism, World Values Surveys, Values
JEL Classifications: **M16, F23**

[a] First Author, E-mail: somerz94@naver.com
[b] Corresponding Author, E-mail: jwkwon@kangwon.ac.kr
© 2018 Management & Economics Research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Ⅰ. 서론

본 연구는 국제경영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게 사용되고 있는 Hofstede의 문화 가치관이 사회과학분야의 빅데이터로 불리는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s Survey; WVS)를 통해 국가간 비교에서 활용 가능 한지를 실증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Cross-cultural 연구에서 그동안 가장 영향력 있는 도구로 사용되어 온 Hofstde 연구는 1970년대부터 전 세계 70개국 이상의 IBM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현재까지도 국가간 비교 연구에서 가장 많이 활용 되고 있다. Hofstede의 설문조사 이후에는 이를 검증하기 위해 다른 표본을 대상으로 여러 학자들의 연구가 이루어진 바는 있지만,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동일한 설문조사를 통해 특정시기별로 동일한 문항으로 설문을 실시하는 WVS의 국가별 자료를 이용하여 문화 가치관 측정과 국가 간의 비교 등을 진행할 수 있다면 소수인원에 그쳤던 대상을 확대하여 신뢰성과 타당성이 높아질 뿐 아니라, 지역간 연구도 가능해진다. 또한, 시계열데이터로 축적되어 차수(Wave)별로 진행되는 조사를 통해 시간별로 문화 변동(Cultural Change)이 일어나고 있는지 측정이 가능할 수 있다.

문화란, 사전적 의미로 “사회적으로 이어져 내려온 행동 유형, 예술, 신앙, 제도 및 인간의 노력과 생각으로 형성된 모든 산물의 총합이자 특정시기나 특정 모임, 특정 집단을 대표하는 유형이나 산물”로 역사나 공통특성, 지리, 언어, 종교나 인종, 풍습, 음악, 농업, 예술 등 복합적인 요소들이 결부되어 있다. 이런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여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행동, 느낌까지 포함한 브룩스 피터슨의 저서 문화지능에서 언급한 정의는 ‘문화는 어느 나라 또는 어느 지역에 속한 사람들의 집단이 일반적으로 보유한, 어느 정도 정착된 내부의 가치와 믿음이며 그 가치관과 믿음이 사람들의 외적인 행동과 환경에 미치는 눈에 띄는 영향력’이다. 이것이 바로 Hofstede 연구에서 정신프로그램(Mental Program) 혹은 정신의 소프트웨어(Software of the Mind)라고 주장하는 ‘문화’로 한 집단 또는 범주를 구성하는 사람들을 다른 집단이나 범주의 구성원들과 구별되게 하는 요인이 된다.

문화는 한 집단이 그 집단만의 색깔을 만드는 범주의 집합적 정신 프로그램이며, 개인이 속한 사회 환경에서 학습되게 되므로 계속적으로 이어진다. 문화에 의해 생긴 특성은 유전되어 잘 변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져 왔고, 이를 증명하는 사실은 각 문화권들 간의 차이가 매우 지속적이라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개인의 정신프로그램 내장은 처음에는 가족 안에서 주입되다가, 자라면서 동일문화를 가진 이웃, 학교, 직장에서 강화되고 이는 교육의 효과로서 끊임없이 생활방식이 후세에 전달되기 때문이다. 습득한 사회적 환경이 다르면 내장된 프로그램에 의해 문화차이를 유발한다.

학문적 관점에서 우리가 연구하는 각각의 시장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고, 보이지 않는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고, 감정, 행동에서 보이는 차이 즉, 문화차이를 통해 개인의 과거를 알고 구조를 알면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다는 맥락에서 국제경영분야에서 문화연구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환경에 따라 각기 다른 문화를 가진 국가들의 속성을 문화가치관을 계량화하여 측정 후 비교하는 방법들이 오랫동안 연구되어 왔다. 지금까지 가장 권위를 가지고 영향력이 있는 방법이 Hofstede의 Values Survey Module이다. 그 외에도, 공동체의 커뮤니케이션에서 고맥락과 저맥락(High Context VS Low Context)을 근간으로 하는 Hall 모형, 이스라엘의 Shalom Schwartz와 동료들이 각 지역의 문화가 추구하는 유사성과 차이점을 기반으로 인간의 56개 가치를 3가지의 기준에 따라 분류한 Schwartz 모형, 업무의 중요도나 직업만족

도 등을 중심으로 문화적 가치를 파악하는 Ronen & Shenkar 모형, Hofstede 모형과 유사한 가치관으로 구성되어 파악한 GLOBE 문화차원, Rockeach의 궁극적가치관과 도구적 가치관 모형 등 수많은 학자들이 전 세계인의 가치관을 계량화 하여 다른 문화를 가진 국가들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를 계속 해왔다.

그 중 World Value Surveys(세계가치관조사)는 1980년 유럽의 여러 신학대학에서 여론조사방법을 통해 국가 사람들의 가치를 조사하는 유럽가치조사(European Value Survey) 모델이 확장되면서 1981년 이후 미시건대학 Ronald Inglehart 교수가 수 십개 국가들의 학자와 함께 사회조사를 실시하여, 전 세계에 동일한 질문을 통해 사람들의 가치관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구축하고 있다. 기본 아이디어는 근대화론(Modernization Theory)이며, 산업화와 경제성장이라는 사회구조적 변화와 더불어 사람들의 가치관도 체계적으로 달라질 것이라는 이론적 예측이 기본 설계이다. 명실상부하게 데이터화 된 World Value Surveys(이하 WVS)는 기존에 제기된 근대화론이 탄탄한 증거와, 훨씬 세련된 이론으로 무장되어 1981년 이후 수행된 각각의 조사(Wave)를 여섯 차례에 걸쳐 완료하였는데, 가장 최근에 조사된 설문은 2010 - 2014 이고 현재 7차 조사가 진행 중이다.

Hofstede와 Minkov의 공저 세계의 문화와 조직(2014)에서도 다시 연구를 시작해야 한다면 전 세계가치조사(WVS)를 가지고 실시할 것이라고 한 만큼, 차수(Wave)별로 진행되고 있는 World Values Surverys를 통해 가장 영향력 있는 Hofstede의 문화가치관을 측정할 수 있다면 Big Data를 활용한 영향력 있는 측정이 가능할 뿐 아니라, 시계열 분석을 통한 문화의 변동(Cultural Change)을 살펴보는데도 유용하며 국가별 연구에서만 활용하던 데이터를 국가 내 지역 간 연구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

Ⅱ. 문화가치관에 대한 이론적 배경

1. 문화가치관의 의미

문화연구의 대가인 Hofstede는 '문화는 특정집단의 구성원으로 구별되게 하는 집단적 마인드 프로그래밍'이라 정의하고, 문화가 개인간 학습행위지만 세대간 전파되어 오랫동안 생명력을 가져, 세대를 넘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공통적 특징을 갖게 하는 종합적인 학습체계라 하였다.

문화의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태도, 가치관, 종교 등을 포함하는 가치체계이며, 성취도나 일에 대한 태도, 직업관 등을 포함한다. 그 외 언어, 종교, 법체계, 지리와 같은 제도는 거의 변하지 않는 안정적 요인이기에 상대적으로 문화 가치관(Cultural Values)은 더욱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

가치는 개인의 선악에 대한 판단, 수용가능성 여부, 무엇이 중요한지 그렇지 않은지, 그 상황이 정상적인지 비정상적인지에 대한 판단 등을 파악하는 근거가 된다. 가치에 기반을 둔 태도는 무의식적으로 대부분 형성되며, 편견이 생기면 특정 문화에 대한 비우호적인 태도를 갖게 한다. 이러 주관적 가치와 태도, 매너나 습관, 종교, 시간적 관념 등 가치를 설명하는 단어는 무수히 많다.

홉스테드는 다양하고 복잡한 문화의 개념을 비교적 잘 요약해주는 요소로 상징, 영웅, 의식, 가치라는 네 가지를 양파껍질 모양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가장 피상적인 수준의 상징부터 깊은 수준의 가치, 그 사이에 영웅과 의식이라는 수준을 언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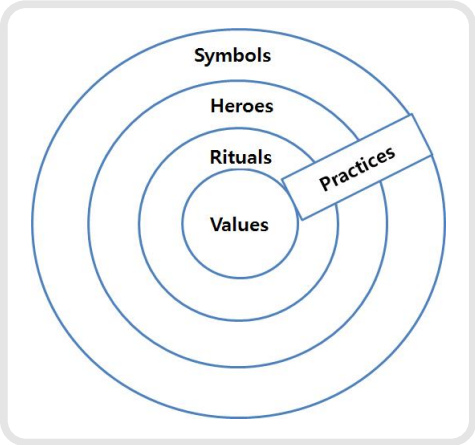
상징(Symbols)이란 같은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의미 있는 말, 동작, 그림 또는 대상 등 문화의 피상적인 모습을 드러내는데 의상, 헤어스타일, 은어 등이며 끊임없이 새로운 상징이 나타나며 대개 다른 문화집단들

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

영웅(Heroes)이란 '김연아'같은 스포츠스타나 '달려라 하니'처럼 만화의 주인공이나 아이돌 스타까지 그 문화 안에서 높이 받드는 특징을 지니고 행동 모방의 대상이 되곤 한다. 특히 요즘처럼 TV나 인터넷 등의 대중매체 영향으로 겉모습이 영웅 선택기준으로 새삼 중요해졌다.

의식(Rituals)이란, 목표달성에서는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없어서는 안 될 것으로 간주되는 집합적 활동으로 인사나 존경을 표하는 방법, 종교적 의식들 등 이다. 상징, 영웅, 의식, 이 세 가지를 관습(Practices)이라 부르며, 사람들이 내리는 관습의 해석이 보통의 문화의 의미가 된다.[1)]

Fig. 1. Hofstede Onion Model of Culture[1)]



하지만, 위의 세 가지보다 더 중요한 문화의 핵인 심층에는 가치(Values)가 자리 잡고 있는데, 가치란 어떤 것이 바람직하므로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생각되는 포괄적 경향성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이 가치를 따라서 생각과 행동을 결정하게 된다. 이 가치에는 선과 악, 깨끗함 대 더러움, 아름다움 대 추함 등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함께 가지고 있다. 홉스테드는 어렸을 때부터 가치체계를 획득하여 정신 속에 무장되기 때문에 가치관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며, 가치관은 문화적 맥락에서 습득되기 때문에 문화에 따라 선호하는 경향성이나, 정도는 차이가 나지만, 여러 다른 상황에서 드러나는 말과 행동을 보고 추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하였다.

1) 세계의 문화와 조직, 3rd ed. 정신의 소프트웨어, Geert Hofstede · Gert Jan Hofstede · Michael Minkov 공저/차재호 · 나은영 공역, 2014, 학지사

2. Hofstede 가치설문 모형 (Hofstede Value Dimensions)

Hofstede는 문화에 관한 속성을 이해하도록 지표(Index)를 수치화 시킴으로써 국제경영 분야 연구에서 기여한 바가 상당히 큰 연구자이다. 비록, IBM이라는 조직에 설문대상이 국한되어 있어 응답자의 일반성 확보에 실패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나 그가 문화에 대한 연구는 문화해석에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의 이론에 이어 지속적인 학자들의 연구가 이어지고 있으나, 국가 내 지역연구에는 적합하지 않는다는 점과 문화의 속성이 변하지 않는다는 논리로 연구된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모형에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문화연구의 대표성을 띄고 있는 설문모형으로 다음과 같은 6가지 항목으로 가치관을 측정하고 있다.

2.1. 권력거리(Power Distance)

한 국가 내 제도나 하위 조직 구성원들이 그 나라의 권력이 불평등하게 분배된 상황을 수용하는 정도로 정의할 수 있다. 홉스테드의 이런 가치관은 인간의 평등 문제의 관심에서 나왔으며, 모든 사람이 여러 집단에서 권력 간의 불평등은 피할 수 없다. 심지어 가정이나 친구 간에도 존재한다. 각각의 사회에서는 권력 간의 불평등을 처리하는 방식 또한 모두 다르며, 가치관 상의 차이가 형성 되어있다. 권력거리가 큰 문화에서는 비교적 강한 계급제도를 인정하면

서 자신의 위치에 안심하고, 권력거리가 낮다는 것은 평등한 사회임을 의미한다.

2.2. 불확실성 회피성향(Uncertainty Avoidance) :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된 사실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학기술이나 법률, 종교나 제도 등으로 불확실성을 해결하고자 한다. 이 때,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종교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홉스테드가 말하는 불확실성의 회피는 문화를 대부분 용인하거나 불확실성을 피하는 것이다.

2.3. 개인주의-집단주의(Individualism -Collectivism) : 개인과 집단의 관계가 느슨한지 치밀한지의 척도이며,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자아와 개인의 성취를 강조한다. 집단주의는 이와 반대로 공동체나 집단의 화해를 강조하여 집단과 사회 간의 관계가 밀접하고 상호 의존 정도가 강하다. 홉스테드는 특정사회에서 개인과 집단과의 관계를 반영하는 것이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는 방식을 문화라고 규정한다.

2.4. 남성성(Masculinity) : 남성과 여성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나타내며, 남자는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여자는 후손을 양육한다는 성 역할을 분배하는 상태를 보여준다. 남성문화는 역량, 자아표현, 경쟁, 웅장한 이상과 포부 등으로 나타내는 반면, 여성문화는 감정을 중시 여기고 동정심이 풍부한 문화로 간주 된다. 거의 모든 문화에서 성별상 불평등은 도전받고 있다.

2.5. 장기지향성(Long-Term Orientation) : 미래의 보상을 지향하는 미덕의 수양을 의미한다. 끈기나 절약 가치로 대변되며 이와 반대되는 개념은 개인적 안정과 현재 지향이라 할 수 있다.

2.6. 응석-절제(Indulgence-Restraints) : 사회가 구성원들에게 즐거움과 관련된 자연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에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허용하는 경향이 높은 정도와 엄격한 사회규범에 따라 욕망이 절제되도록 통제하는 경향이 강한 가치관을 말한다.

3. 세계 가치관조사(WVS : World Values Surveys)

세계 여러 나라의 사회조사를 통해 사람들의 가치관을 비교할 수 있는 이 자료는 1981년 미시건 대학의 정치학자인 Ronald Inglehart의 제안에 전 세계 학자들이 동참함으로 시작되었고, 세계적인 규모로 이루어지다보니 2-3년 정도의 차이가 있더라도 비슷한 시기에 조사를 하는데 현재까지 여섯 번째 조사를 마치고 7차 조사(Wave)가 진행 중이다.

전 세계 사회학자들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가치관의 변화를 연구하고 정치, 사회, 문화, 종교, 인구, 교육 등에 걸쳐 100개 이상의 국가에서 360개 이상의 항목의 동일한 질문

Table 1. Culture Classification by Peterson, BROOKS

	Wide Culture (Traditional and Important Subjects)	Narrow Culture (General and Trivial subjects)
Invisible Culture (Difficult to see)	Values, Attitudes, Beliefs, Noms, Society, History etc	Public issues, Opinions, Preferences Interest, Specific Knowledge
Visible Culture (Easy to see)	Geography, Architecture, Politician, President and Traditional music	Artifacts ; Food, Dress, Gesture, Music, Drama

Table 2. World Values Surveys Participants

Continent		Nation	1W	2W	3W	4W	5W	6W
Latin America		Mexico	O	O	O	O	O	O
		Argentina	O	O	O	O	O	O
		Chile		O	O	O	O	O
		Brazil		O			O	O
		Peru			O	O	O	O
		Colombia			O		O	O
		Uruguay			O		O	O
		Tobago					O	O
		El Salvador			O		O	
		Guatemala					O	
		Venezuela			O	O		
		Dominican Republic			O			
		Puerto Rico			O	O		
		Ecuador						O
		Republic of Haiti						O
ASIA	East	Korea	O	O	O	O	O	O
		Japan	O	O	O	O	O	O
		China		O	O	O	O	O
		Taiwan			O		O	O
		Hong Kong					O	O
	Middle & Islamic	Turkey		O	O	O	O	O
		Cyprus					O	O
		Georgia			O		O	O
		Jordan				O	O	O
		Iraq				O	O	O
		Kazakhstan						O
		Uzbekistan						O
		Azerbaijan			O			O
		Armenia			O			O
		Saudi Arabia				O		
		Kuwait						O
		Lebanon						O
		Iran				O	O	
		Israel				O		
		Palestine						O
		Kyrgyzstan				O		O
		catarrh						O
		Yemen						O
	South East	India		O	O	O	O	O
		Thailand					O	O
		Malaysia					O	O
		Pakistan			O	O		O
		Philippines			O	O		O
		Singapore				O		O
		Vietnam				O	O	
		Indonesia				O	O	
		Bangladesh			O	O		

Continent		Nation	1W	2W	3W	4W	5W	6W
Europe	South-East	Macedonia			O	O		
		Serbia			O	O	O	
		Hungary	O		O		O	
		Moldova			O	O	O	
		Czech Republic		O	O			
		Slovakia		O	O			
		Russia		O	O		O	O
		Poland		O	O		O	O
		Belarus		O	O			O
		Romania			O		O	O
		Bosnia			O	O		
		Bulgaria			O		O	
		Croatia			O			
		Lithuania			O			
		Slovenia			O		O	O
		Ukraine			O		O	O
		Albania			O	O		
		Italy					O	
	West	Spain		O	O	O	O	O
		Andorra					O	
		Swiss		O	O		O	
		Germany			O		O	O
		Netherlands					O	O
	North	Finland	O		O		O	
		Norway			O		O	
		Sweden			O	O	O	O
		Estonia			O			O
		Latvia			O			
Africa		South Africa	O		O	O	O	O
		Nigeria		O	O	O		O
		Egypt				O	O	O
		Morocco				O	O	O
		Ghana					O	O
		Rwanda					O	O
		Zimbabwe				O		O
		Tanzania				O		
		Burkina Faso					O	
		Algeria				O		O
		Ethiopia					O	
		Uganda				O		
		Mali					O	
		Zambia					O	
		Libya						O
		Tunisia						O
Anglo		U.S.			O	O	O	O
		New Zealand			O		O	O
		Australia			O		O	O
		U. K.			O		O	
		Canada				O	O	
TOTAL			**10**	**18**	**55**	**40**	**58**	**60**

을 전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스웨덴 Stockholm에 조사본부를 두고 있다.

상업적으로 이용되지 않고 순수한 학자들과 정책개발자들에게 널리 이용되고 있는 이 거대한 설문데이터는 40만 명 이상의 응답자들의 인터뷰까지 포함하여 인간의 신념과 가치에 대한 시계열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어 문화적 요인과 경제개발 사이의 연결고리를 분석하는 대표적인 가치관 조사방법으로 인정받고 있다.

브룩스 피터슨의 저서 문화지능[2]에서 분류한 문화는 전통적이고 중요한 주제를 다루는 큰 문화와 사소하고 일반적인 주제를 다루는 작은 문화로 분류하고 있는데, World Value Surveys에서는 비가시적 문화에 대한 큰 문화와 작은 문화 할 것 없이 전 분야에 걸쳐 설문이 구성되어 전 세계 100개국의 90% 이상의 국가에 살고 있는 대상자들이 표본이 되어 많은 사회학자들과 경제학자, 신학자 및 인류학자들에게도 강력한 연구 자료가 되고 있다.

1981-1984년 1차 조사부터 2010-2014년 6차 조사까지 〈Table 2〉에 World Values Surveys 차수별로 조사된 모든 국가를 나열하였다. 1차 10개국, 2차 18개국, 3차 55개국, 4차 41개국, 5차 58개국, 6차 60개국이 참여하였다.

Ⅲ. 연구방법론

1. 연구모형

객관적인 데이터인 World Values Surveys (이하 WVS)를 통해 Hofstede의 문화가치관을 측정하기 위해, 향후 문화의 변동성을 측정할 수 있는 시계열데이터로 이용 가능한 문항들을 위주로 Hofstede 가치관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들을 선행연구를 통해 선정하였는데, 향후 연구방향을 고려하여. 시간을 두고 문화 변동성을 측정할 수 있는 표본 선정을 고려하여 WVS에서 비교적 많은 국가들이 참여한 3차 조사(1994-1998년)와 WVS 6차 조사(2010-2014)에 동시에 참여하고 있는 31개 주요 국가를 그 대상으로 하였다.

2. 데이터 및 분석방법

2.1 가치관별 문항 선정 및 신뢰성 분석

WVS에서 설문문항은 주로 홉스테드와 민코프(Hofstede & Minkov)의 세계의 문화와 조직(2014)에 언급된 선행변수들과 기존의 연구를 통해 선정하였는데, Hofstede 가치관에 따른 WVS의 설문문항을 연계시켜보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검증된 설문조사이지만 우선 문항 선정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을 파악하였다.

2.2 탐색적 요인분석 및 확인적 요인분석

변수타당성은 사용된 설문이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나 속성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였는가를 나타내는데, 문화가치관 구성개념을 파악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표본적합도 지표인 KMO(Kaiser-Mayer-Olkin)를 이용하여 적합도를 파악하였고, 주성분분석과 베리맥스 회전방식, 고유값 1이상, 표본크기가 10만개 이상인 점을 감안하여 요인적재량을 0.4 기준으로 수행하였다. 요인추출은 주성분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 방식을 사용하였다. 문화가치관 변수구성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KMO(Kaiser-Mayer-Olkin)의 MSA(표본적합도)는 0.711로 적합도 수준은 양호하며, 유의확률 또한 0.000으로 도출되었다. 신뢰성에 영향을 크게 주는 변수 2개(남성성 : Job scare, 응석과 절제 : Leisure Important)는 제거하였다.

2) 문화지능(Cultural intelligence) - 글로벌 시대의 경쟁력, 청림출판, 2006

Table 3. Measurable Questionnaires per Cultural Values and Cronbach's Alpha

Values	Cronbach's Alpha	Variables	WVS Questionnaires	Scales
Individualism	.667	IND 1	Satisfaction with your life	1 : No - 10 : Very
		IND 2	How much freedom of choice and control	1 : No - 10 : Very
Power Distance	.613	PDI 1	Interest in politics	1 : Yes 2 : Maybe
		PDI 2	Political action : Signing a petition	3 : No
		PDI 3	Political action : joining in boycotts	1 : Very - 4 : Never
Masculinity	.596	MAS 1	Men make better political leaders than women do	1 : Very Agree -
		MAS 2	University is more important for a boy than for a girl	4 : Very Disagree
	(*before .541)	MAS 3	Job Scare ; Men should have more right to a job	Delete
Uncertainty Avoidance	.745	UAI 1	Confidence ; Parliament	1: Very - 4: None
		UAI 2	Confidence ; The political Parties	1: Very - 4: None
		UAI 2	Confidence ; Justice system/	1: Very - 4: None
Long-Term Oriented	.547	LTO 1	Important in life: Religion	1: Very - 4: None
		LTO 2	Justifiable: abortion	1 : Never - 10 : Always
		LTO 3	Future Changes ; Greater respect for authority	1 : Good - 3 : Bad
		LTO 4	One of main goals in life has been to make my parents proud	1 : Very Agree - 4 : Very Disagree
		LTO 5	How proud of nationality	1 : Very - 4 : Never
Indulgence -Restraints	.593	IVR 1	State of health(subjective)	1 : Very - 5 : None
		IVR 2	Feeling of happiness	1 : Very - 4 : None
	(*before .502)	IIVR 3	Important in life: Leisure time	Delete

Fig. 2. Cultural Values Confirmatory Analysis Mod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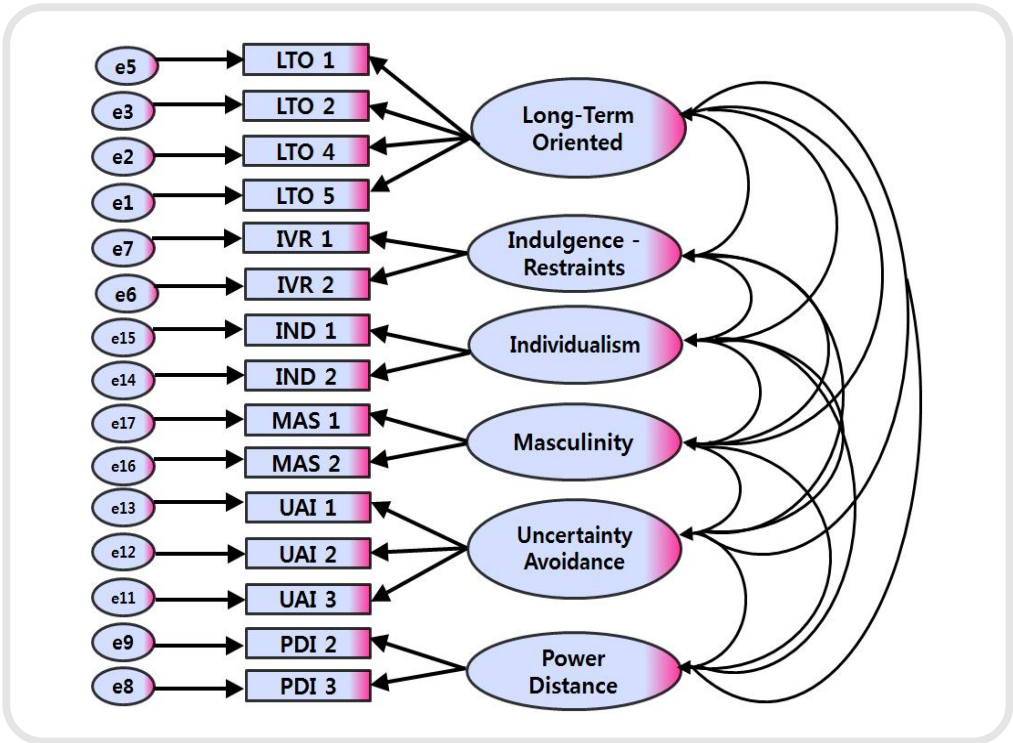


Table 4. Factor Analysis

Questionnaires	Factors							
	1	2	3	4	5	6	7	8
Confidence ; Parliament	0.860							
Confidence ; The political Parties	0.818							
Confidence ; Justice system	0.726							
Important in life: Religion		0.679						
Justifiable: abortion		0.627						
Future Changes ; Greater respect for authority		0.566						
One of main goals in life has been to make my parents proud		0.550				-0.248		
How proud of nationality		0.471	-0.377					
Satisfaction with your life			0.792			0.233		
How much freedom of choice and contrd			0.745					
Men make better political leaders than women do				0.761				
University is more important for a boy than for a girl				0.738				
Job Scare ; Men should have more right to a job			-0.287	0.616		0.300		
Political action : joining in boycotts					0.786			
Political action : Signing a petition					0.761			
Interest in politics					0.631			
State of health(subjective)						0.721		
Feeling of happiness						0.696		
Important in life: Leisure time						0.502		
Competition good or harmful							0.783	
Hard work brings success							0.674	
Private vs state ownership of business							0.631	
Government responsibility								0.740
Income equality								0.718
Self positioning in political scale			0.317					0.462
KMO				0.711				
Barlett inspection				X2 = 176159.536 / df=300				
p-value				0.000				

**Notes : Extraction method :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Rotation : converged in 6 iterations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제시된 차원에 대해 확인적 요인분석(CFA)를 실시하여 단일차원성을 측정하였는데, 탐색적 요인분석 수행 이후, 지수에 적합하지 않은 변수들을 제거한 이후 AMOS24를 이용하여 추가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에 적합하지 않은 2개 변수 즉, LTO 3항목의 E016(Future Changes; Great Respect for Authority)과 UAI 1 항목의 E023(Interest in Politics)을 제거하여 적합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일반적으로 모형 평가 방법은 카이제곱검정을 이용하거나, 기타의 절대적합지수를 확인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X2(카이제곱검증)의 경우 영가설의 내용이 엄격해서 검증하고자 하는 모형을 쉽게 기각할 확률이 크며, 표본 값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표본의 크기가 클수록 값이

Table 5. AMOS Structural Equation Standard of Suitability of CFA

	Fit Index	Model-Fit	CFA	Result
Absolute fit index	X2	0.05 or more	.000	no good
	RFI(Relative Fit Index)	0.9 or more	.909	good
	RMSR (Root Mean Square Residual)	0.05 or less	.041	good
	RMSEA(Root Mean Squared Error of Approximation)	0.08 or less	.041	good
Parsimonious fit index	PNFI(Parsimony ration)	0.5 or more	.590	good
Incremental fit index	NFI(Normed Fit Index)	0.9 or more	.943	good
	NNFI/TLI(Tucker-Lewis Index)	0.9 or more	.910	good
	CFI(Comparative Fit Index)	0.9 or more	.944	good

Table 6.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Results

Values	P-value	Std. Error	Std. Dev	C. R	P-value
Individualism	IND 1	1.000			
	IND 2	2.007	.024	82.468	***
Power Distance	PDI 2	1.000		42.219	
	PDI 3	2.473	.059		***
Masculinity	MAS 1	1.000			
	MAS 2	1.476	.024	61.711	***
Uncertainty Avoidance	UAI 1	1.000			
	UAI 2	1.360	.010	140.024	***
	UAI 3	1.564	.012	134.676	***
Long-Term Oriented	LTO 1	1.000			
	LTO 2	.509	.007	76.851	***
	LTO 4	.580	.007	79.597	***
	LTO 5	.333	.004	82.683	***
Indulgence -Restraints	IVR 1	1.000			
	IVR 2	1.470	.013	110.655	***

*** : $p < 0.001$

커지는 경향으로 절대적인 평가방법으로 의존하지 말 것을 권장하고 있다(설현수, 2003). 실제로 본 연구에서도 기각(X2=12648.429, df=75, p=.000)되어, 간명적합지수와 증분적합지수들을 이용하여 모형을 검증하여 적합한 검증결과를 도출하였다.

잔차평균자승이중근(RMSR; Root Mean Square Residual)은 0.05 이하이면 모형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0.041로 나타났다. 그외 구조방적식 적합도 이용 지수표와 본 몬 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시행결과 적합도는 다음과 같다.

각 변수별 확인적 요인분석결과는 〈Table 6〉과 같다.

2.3 분석방법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해 IBM SPSS 24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탐색적 요인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얻어진 변수인 조사문항과 Hofstede 문화가치관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두 변인 간의 상호연관성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다. 상관분석은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측정하고 묘사하는 통계의 기법으로 관계의 방향성과 관계의 정도를 나타낸다.

2.4 조사대상국가의 기초 통계자료

영어권 3개 국가, 유교아시아권 4개 국가, 동남아시아 3개 국가, 아프리카-이슬람권 4개 국가, 라틴아메리카 6개 국가, 유럽의 정교회 6개 국가(Orthodox Europe), 유럽의 천주교 3개 국가(Catholic Europe), 유럽의 개신교 2개 국가(Protestant Europe)로 총 31개 국가가 본 연구의 조사대상 국가이다.

Table 7. Nations Raw Data(6 Wave)

Culture Group	Nation	N	Percentage(%)
English Speaking(3)	U. S	2,232	3.8
	Australia	1,477	3.5
	New Zealand	841	2.0
African-Islamic(4)	Azerbaijan	1,002	3.0
	Turkey	1,605	3.5
	South Africa	3,531	6.4
	Nigeria	1,759	3.7
South Asia(3)	India	1,581	3.6
	Philippines	1,200	2.4
	Pakistan	1,200	1.9
Confucian(4)	Taiwan	1,238	2.0
	Korea	1,200	2.4
	China	2,300	3.8
	Japan	2,443	3.5
Orthodox Europe(6)	Ukraine	1,500	4.3
	Belarus	1,535	3.6
	Russia	2,500	4.5
	Romania	1,503	2.7
	Armenia	1,099	3.1
	Gergia	1,202	3.2
Catholic Europe(3)	Slovenia	1,069	2.1
	Spain	1,189	2.4
	Poland	966	2.1
Protestant Europe(2)	Sweden	1,206	2.2
	Germany	2,046	4.0
Latin America (6)	Argentina	1,030	2.1
	Colombia	1,512	7.5
	Chile	1,000	2.0
	Mexico	2,000	4.3
	Peru	1,210	2.4
	Uruguay	1,000	2.0
TOTAL		47,176	100

Ⅳ. 실증분석 결과 : Hofstede 문화차원과의 상관관계

상관분석은 회귀분석의 작은 한 분야로 변수 간의 상관관계 정도를 분석하는 통계방법이다. Hofstede 연구를 통해 발표한 국가별 문화가치관 점수와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WVS에 국가별 조사된 문항들과 Hofstede 점수와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관계분석은 사회적 수많은 현상들에 관련된 요인들이 동시에 작용하는 다중인과적이기 때문에 원인을 분리하는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분석결과 각 항목들은 대부분 유의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주의(Individualism)는 개인 간의 구속력이 느슨한 사회를 의미하며, WVS 문항과 매칭되는 문항은 삶의 만족도와 스스로의 선택과 통제의 자유에 해당되는데 이는 Michael Harris Bond가 만든 중국가치조사(Chinese Value Survey)에서 조사한 23개국 출신 학생들을 통해 개인주의가 높은 사람은 인생에서 자기 위치에 대한 만족이라는 가치를 중요시하는 맥락과 일치한다. 또한, 개인주의사회에서는 독립적인 자아와 언어에 있어서도 "나"라는 말을 쓰는 것이 장려되는 특징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스스로의 자유와 통제에 대한 권한을 묻는 WVS 설문문항과 Hofstede의 문화가치관과 상관관계는 기존의 선행연구와 상당히

Table 8. Correlation Between Hofstede Values and WVS Questionnaires

Cultural Values	WVS Code	Title	Reverse Coding	Correlation
Individualism	A170	Life satisfaction(1 : Dissatisfied)	NO	.326**
	A173	How much freedom of choice and control?(1 : Not at all)	NO	.250**
Power Distance	E025	Political action : Signing a petition(1 : Have done)	YES	.303**
	E026	Political action : Joining in boycotts	YES	.211**
Masculinity	D059	Men make better political leaders than women do (1 : Agree strongly)	YES	.037**
	D060	University is more important for a boy than for a girl (1 : Agree strongly)	YES	.087**
Uncertainty Avoidance	E069	Confidence : Parliament	YES	.220**
	E069	Confidence : The political parties	YES	.232**
	E069	Confidence : Justice system / Courts	YES	.159**
Long-Term Oriented	D054	One of main goals in my life has been to make my parents proud (1 : Agree Strongly)	YES	.193**
	F120	Justifiable ; Abortion (1 : Never justifiable)	YES	.143**
	A006	Important in life ; Religion (1 : Very important)	YES	.318**
	G006	How proud of nationality (1 : Very proud)	YES	.237**
Indulgence -Restraints	A008	Feeling of Happiness (1 : Very happy)	YES	.212**
	A009	State of Health(subjective) (1 : Very happy)	YES	.183**

유사하게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권력거리(Power Distance)는 정치적인 행위참여와 관련된 문항들이 해당되었다.

불확실성 회피성향(Uncertainty Avoidance)은 한 문화의 구성원들이 불확실한 상황이나 미지의 상황으로 인해 위협을 느끼는 정도를 의미하는데, WVS 설문문항에서는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에 대한 질문들과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성-여성성은 주로 성과 성역할에 대한 상대적인 면을 나타내는데 남성적이라 불리는 사회는 자기주장이 강하고, 거칠고 물질적 성공에 집중해야 하는 반면, 여성들은 겸손하고 부드러워야 하며 삶의 질에 관심이 많은 사회로 알려져 있다. 기존 선행 연구에서 이러한 남녀 역할의 패턴은 주로 가정에서 학습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교육의 기회와 성역할에 대한 인식 차이 또한 학습되기 때문에 WVS 설문문항이 Hofstede의 남성성 / 여성성의 문화가치관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이 설명가능하다.

장기지향성(LTO)에 대한 질문은 대부분 전통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으며, 실제로 Hofstede와 Minkov 저서 세계의 문화와 조직(p.309)에서 단기지향 사회와 장기지향사회 간의 핵심 차이점에 언급된 국가, 가족, 전통에 대한 긍지 등이 이러한 특징을 구분하는 요인과 일맥상통한다.

응석(Indulgence) 또한 재미있게 지내기, 삶 즐기기와 연관된 인간의 기본적, 자연적 욕망에 대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충족을 허용하는 경향을 의미하며 행복감과 가장 관련이 많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들과 일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Ⅴ. 결론 및 토론

수많은 다양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도 연속적인 구성원들을 통해 그 사회 특유 문화는 세대를 거쳐 지속적으로 전달되고 있으며, 정신을 통해 흐르고 있다. 이러한 국가 간의 가치관(Values)을 분석하는데 있어 가장 영향력 있는 홉스테드 문화차원을 측정하는 데 있어 World Value Surveys를 활용가능한지를 통계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그 타당성을 입증하였다.

Hofstede 문화차원 중 개인주의(Individualism)에 해당되는 문항은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와 선택과 통제의 자유 정도(How much freedom of choice and control)라는 두 가지 문항과 강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권력거리(Power Distnace)는 정치적 행동 참여에 관한 설문문항 두 가지(Political action : Signing a petition, Joining in boycotts)와 남성성과 여성성은 정치지도자에 대한 성별선호도(Men make better political leaders than women do)와 대학교육에 대한 성별중요도(University is more important for a boy than for a girl) 문항이 해당되었다. 불확실실성 회피성향(Uncertainty Avoidance)은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도와 관련된 세 가지 문항(Confidence : Parliament, The political parties, Justice systems/Courts)으로 검증되었다. 장기지향성은 부모, 종교, 국가 등 정체성과 관련 깊은 문항(One of main goals in life has been to make my parents proud, Justifiable ; Abortion, Important in life ; Religion, How proud of nationality) 네 가지의 문항이 해당되었고, 응석과 절제(Indulgence and Restraints)는 현재의 본인 상태(Feeling of Happiness, State of Health)를 묻는 두 가지 문항이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를 통해 World Values Surveys (이하 WVS)라는 빅데이터를 통해 Cross-Cultural 연구에 가장 영향력 있는 측정도구로 쓰이고 있는 Hofstede 문화가치관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결과를 확인하였다는 점에 연구 의의가 있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점은 향후 연구해야 할

과제이다.

첫째, Hofstede의 연구는 1970년대 70개국 이상의 IBM직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WVS의 6차 조사의 결과에 따른 상관관계 분석을 적용하였다. 시간의 간격이 약 20년이라 볼 수 있다. Hofstede는 그의 연구에서 문화는 매우 안정적이며 100년 이내에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 주장하였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문화가 변화한다는 문화가변성이 인정된다면 통계적 오류라 인정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문화가 변화하였는지에 대한 검증을 필요로 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31개 국가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증분석 하였으나, 더 많은 국가들의 데이터를 반영하여 함께 검증을 해야 할 것이다.

셋째, 결과를 검증하는 데 있어 탐색적 요인과 확인분석을 통해 통계적인 유의성이 입증되었지만 상관관계분석 외에 추가적인 방법으로 WVS를 통해 활용이 가능한지 검증이 필요하다.

이러한 부분이 보완된다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되고 있는 전 세계인들의 방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국가간 연구 뿐 아니라, 국가내 지역간 연구에서도 정책이나 전략을 수립하는데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Barney, J. B. (1991), “Firm Resource and Sustained Competitive Advantage”, *Journal of Business Management*, 17, 99-120.

Hofstede, G. (1980), “Culture's Consequences: International Differences in Work-related Values”, Beverly Hills, CA: SAGE.

Hofstede, G. (2001), “Culture's Consequences: Comparing Values, Behaviors,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across Nations(2nd ed.)”, Beverly Hills, CA: SAGE.

House, R. J., P. J. Hanges, M. Javidan, P. W. Dorfman and Gupta. (2004), "Culture, Leadership, and Organizations : The GLOBE Study of 62 Societies", Thousand Oaks, CA: SAGE.

Inglehart, R. (1997), Modernization and Post-modernization : Cultural, Economic, and Political Change in 43 Societie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Kim, U., H. C. Triandis, C. Kagitcibasi, S. C. Choi and G. Yoon (1994),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Theory, Method, and Applications”, Thousand Oaks, CA: SAGE.

Mcsweeney, B. (2002), Hofstede's Model of National Cultural Differences and Their Consequences: A Triumph of Faith-a Failure of Analysis, Human Relations.

Murphy, E., J. Goerdon, and A. Mullen (2004), “A Preliminary Study Exploring the Value Changes Taking Place in the US since the September 11, 2001 Terrorist Attack on the World Trade Center in New York”, *Journal of Business Ethics,* 50(1), 81-96.

MW Li, MH Bond (2010), Value Change; Analyzing National Change in Citizen Secularism across Four Time Periods in the World Values Survey.

Ronald Inglehart (1977), The Silent Revolution, Changing Values and Political Styles among Western Public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Samuel P. Huntington and Lawrence E. Harrison (2001), Cultures Matters: How Values Shape Human progress, New York: Basic Books.

Sjoerd Beugelsdijk, Robbert Maseland, and Andre Van hoorn (2015), “Are Scores on Hofstede's Dimensions of National Culture Stable over Time? A Cohort Analysis”, *Global Strategy Journal,* 5(3), 19-45.

R. A. Webber (1969), Convergence in Managerial Philosophy and Practice, in R.A. Webber(Hrsg.), Culture and Management (Homewood, Illinois).

Schwartz, S. H. (2012), An Overview of the Schwartz Theory of Basic Values, Online Readings in Psychology and Culture, 2(1).

Vas Taras, Piers Steel, and Bradley L. Kirkman (2012), “Improving National Cultural Indices using a Longitudinal Meta-analysis of Hofstede's Dimensions”, *Journal of World Business,* 47(3), 329-342.